

Analyst. 손 지 우 / 3773-8827, jwshon@sk.com

GM BOLT의 뼈 있는 한 마디, “너넨 뭐 했니?”

▶ GM 외엔 아무도 2세대 전기차를 양산조차 하지 못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침
그런 BOLT의 핵심 기술인 LG화학 중대형 파우치 배터리에 대한 시장 재평가도 필요한 상황임

GM의 한 마디, “우린 400km 전기차 만들 때 너넨 뭐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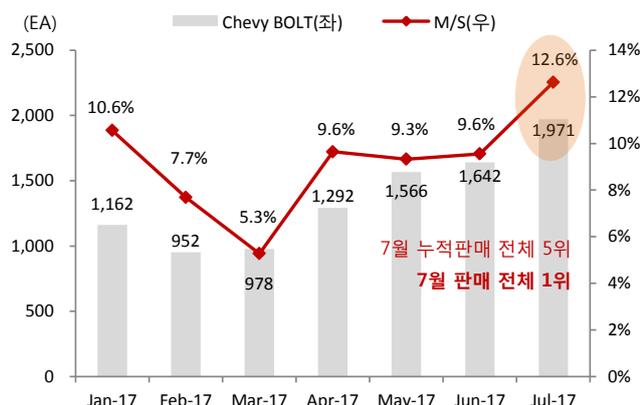
Forbes는 지난 주 2세대 전기차(일명 LREV, Long-Range EV)를 유일하게 출시해 성공리에 판매하고 있는 Chevrolet의 Jim Cain(Business and Dealer Communications specialist)과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Tesla Model 3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는 독창성있는 Tesla라는 회사를 칭찬함과 동시에, 오히려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뼈 있는 말을 남겼다

“Let me respond...where is the 238-plus mile EV from Toyota, Honda, Fiat-Chrysler, Nissan, Hyundai-Kia, Nissan, Subaru, Mitsubishi, Mercedes, BMW, Volkswagen, Mazda, et al?”

자료 : Forbes, InsideEV, SK증권

- 지난 주 Chevrolet와 Forbes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흘러 나와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현재 전 세계에서 2세대 전기차, 일명 LREV(Long-Range EV)를 유일하게 출시/판매하는 업체는 GM(Chevrolet)이죠. 1세대 전기차는 대다수 항속거리가 약 150km인 반면, BOLT는 400km에 이릅니다. (Tesla Model S는 1억원을 넘나드는 럭셔리 세단)
- 그런 GM에게 Forbes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Tesla Model 3를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 그에 대한 대답이 가관이네요. Tesla는 오히려 칭찬을 하고, 대신 “우린 400km가는 전기차 만들 때, 도요타, 혼다, 피아트-크라이슬러, 니산, 현대-기아, 쉐보레, 미쯔비시,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 마즈다, 너넨 뭐했니? 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미 미국 7월 전기차판매 1위를 기록한 GM BOLT



자료 : Bloomberg, SK증권

- 그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GM BOLT가 지금 잘 나가거든요
- 연초부터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랭킹 5위권을 유지했는데, 기여이 지난 7월에는 1,971대를 판매해 월간 기록을 세움과 동시에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은 12.6%였습니다
- 아직 미국 전역에 런칭된 것도 아니고(여전히 캘리포니아 판매 대다수), 글로벌은 거의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의 숫자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GM의 이런 앞선 기술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크게 인지되지 못한 듯 합니다. BOLT도 출시 당시 근거 없는 무시를 많이 당했으니까요. 동시에 BOLT 성능개선의 핵심이 LG화학의 중대형 파우치 배터리라는 것도 많이 인지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소형 및 캔타입과 비교될 정도죠. 아직도 LG화학의 최근 주가 강세가 단순 버블로 보이시나요?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4단계 (6개월 기준) 25% 이상 → 적극매수 / 10%~25% → 매수 / -10%~+10% → 중립 / -10%미만 → 매도

